참 남자 기근, 참 여자 기근

(신명기 24:1~5)

1.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참 남자 기근, 참 여자 기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참 남자 기근, 참 여자 기근'

여러분이 아직도 기억하시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식지 않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초능력을 가진 외계인과 스타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 400년 전 지구에 떨어진 외계남인 도 민준과 왕 싸가지 한류여신 톱스타 천 송이의 기적과도 같은 달콤 발랄로맨스"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중국대륙이 열광하면서 인기와 관련된 일화로 드라마 속에서 나온 치맥(치킨과 맥주)이 중국에 아주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드라마에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 2014년 7월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아내인 펑리위안 여사를 대동해서 한국을 내방했습니다. 이때에 남편은 박 근혜 대통령과 일을 보는 동안에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씨가 펑리위안 여사를 모시고 창덕궁 인정전과 후원 등을 구경시킬 때였습니다. 펑리위안 여사가 창덕궁을 구경하다가 '이곳에서도 한국드라마 대장금을 촬영했었나요? 마치 제가 대장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 윤선 씨가 '중국에서 열풍을 일

으키고 있는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봤을 뿐만 아니라 나도 천 송이처럼 별에서 온 그대를 찾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미있지요.
'나도 별에서 온 그대를 찾으면 좋겠다.'는 말이 재미있는 이유는, 13억 5천만이라는 세계 제1의 인구수를 가진 나라의 제1인자의 아내이고, 중국이 세계의 제2의 국가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농담이겠지만 농담만으로 들을 수는 없어요. 모두가 드라마를 보면서 현실 속의 아내와 남편이 아닌 자기 마음속에 깊이 숨겨둔 꿈속의 남자와 여자를 떠올려보는 것은 나무랄 것도 없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나라 5천만의 대통령도 대단한데, 13억 인구로 이루어진 나라의 제1인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를 남편으로 둔 여자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현재 이 지구위의 온 세상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굶주림에 대한 주제를 드라마화 한 것이라고 봅니다. 남자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한류여신이면서도 천 송이가 왕 싸가지가 된 이유는 임자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으면 다 왕 싸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드라마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어쨌든 도 민준이 별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산다고 하는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결국 도 민준을 만난 왕 싸가지 천 송이가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참 남자 기근 때문에 지구 밖 다른 별에서 참 남자를 수입해야 될 판입니다. 그렇다면 참 여자는 풍부합니까? 이상한 것은 참 남자가 없으면 참 여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왕 싸가지 천 송이가 '별에서 온 그대'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바뀌는 것처럼, 참 남자가 있어야 참 여자도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참 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남자와 참 여자가 무엇이냐? 육체뿐만이 아니라 속도 참다워야 참 남자와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육체에 남녀의 성별이 있듯이 마음에도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성별의 기준이 있을 것인가, 참 위험한 발언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열풍은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교포들도 이것에 대해 마음으로라도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동성애 열풍의 일환이 남녀의 구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화장실도 남녀화장실을 없앤다고 합니다.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은 이미 그 구분을 없앴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다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성 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뼈도 못 추릴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성별을 무시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뼈도 못 추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살다가는 나중에 뼈도 못 추릴 것이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도 성별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이 어

떤 것일까요? 성격이 대범하면 남자고 섬세하고 여리면 여자입니까? 결단력이 있고 의지와 추진력이 있으면 남자고 감성적이면 여자입니까? 공격적이면 남자고 수동적이면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남자 앞에서 어떤 여자가 진짜이고, 여자 앞에서 어떤 남자가 진짜일까요? 많은 부부 문제가 있지만 바로 참 남자와 참 여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기만 해도 부부문제의 70~80%이상은 없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부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회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갖고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에 내가 참 여자인지를 볼 수 있고,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참 남자인지를 볼 수 있으면 부부문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부부의 이혼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라고 이혼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위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혼의 이유는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데 ‘수치 되는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랍비 학파인 힐렐 학파는 남편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점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남성우월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같은 랍비 학파 중에서 샴마이 학파에서는 간음의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간음의 경우에는 이미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힐렐 학파의 의견이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5:31~32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라고 하십니다.
힐렐 학파의 주장대로 남자에 의해서 아내가 맘에 안 든다고 이혼증서를 써주는 이혼은 불가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혼사유인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앞장인 신23:14절에 나오는데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것’을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불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수치되는 일’은 하나님이 진중에 함께 하실 수 없는 불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도저히 병존할 수 없고 합해질 수 없는 상태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선민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보인다면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것인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불합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했다가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을 보니까 지금 얻은 아내보다 옛 아내가 그리워진다고 하여도, 옛 아내와 사는 남자가 죽었거나 이혼을 당했어도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려는 생각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어려운 일이 아내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냈다는 게 결국 핑계였냐는 것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서 쫓아냈느냐는 것인데, 즉 이 말은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재결합하는 것에서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고 '이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절을 함께 생각하면서 알아보고 참 남자와 참 여자를 찾아가 봅니다.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라고 하십니다. '결혼 일 년 동안은 남자를 병역 및 각종 공무로부터 면제해주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유는 '결혼하고 일 년 동안은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결혼한 남자들은 다 가질 수 있는 의문으로 무슨 수로 무려 일 년 동안이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일 년 동안 남편이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자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뜻은 '신혼이기 때문에 깨가 쏟아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 '에덴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결혼풍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 결혼에서 '에덴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즉 '결혼한 일 년 동안에 남편으로서 아내와 하나님이 3인조로 행복한 동거를 위한 에덴적 틀을 만들어 내는 기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해야 일 년 동안 나도 아내도 하나님도 모두가 행복한 에덴의 틀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타락 전에 에덴에서 아담이 행복한 3인조 동거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아담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없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판단하고 생각할 능력이 있지만 내 판단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에게 데리고 가십니다. 이 상태에서 참 남자와 참 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 남자가 참 여자 앞에서 나타나고 참 여자가 참 남자 앞에서 나타날 때 창2: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구상하신 여자에 대한 구상을 그대로 받아서 아담이 표현한 것입니다. 창22:21~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자 앞에서의 참 남자의 모습은 무조건하고 여자가 끼어들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자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지금은 내 생각과 판단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아내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정도로 하나님과 밀착된 남자가 참 남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여자인 하와가 자기의식으로 만난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아담이었고 참 남자였습니다.

그럼 참 여자는 무엇일까요? 남자를 볼 때에 그 남자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여자가 참 여자입니다.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 학력이 어떠냐? 잘 생겼느냐 못 생겼느냐? 남자다운 추진력이 있느냐 없느냐? 마초적인 기질이 있어서 섹시 가이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 참 여자는 남자를 찾을 때에 '남자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남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남자와 참 여자의 모습에 사탄이 끼어들면서 완전히 망가져버렸는데 바로 타락입니다. '결혼하고 일 년 동안 여자를 즐겁게 해주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결국 선민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가 여자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에 이 '3인조 동거가 불화 없이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자가 참 선민이라면 남편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매진하는 모습을 좋아해야 하는데 그 모습을 감당하질 못하고, 왜 내 얼굴을 안 보고 이벤트를 해주지 않고 외식을 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봅니다. 사실 이벤트, 외식 그까짓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도 또 뼈를 못 추릴 얘긴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잘하고 있는 남편을 둔 권사님이 100일을 작정하고 철야기도해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남편의 마음이 사업에 다 가있으니 사업이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인데 이게 참 여자인 것입니다. 사업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자가 참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사업이 망하면 자식들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사업이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쫓아오므로 도망가서 전라도 군산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기도대로 되었는데 이게 참 여자라는 것입니다.

참 남자는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만족과 기쁨을 유지해가는 남자가 참 남자입니다. 참 여자는 돈 많이 버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요새는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참 여자는 남자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믿고 있다면 여자의 기도는 '돈 못 벌어

도 좋고, 굶어죽어도 좋으니 죽기 전에 남편 입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다'는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신나서 짝꿍이 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여자의 꿈이고 여자의 환상이고 별에서 온 그대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사업이나 권력이나 정치나 건강에 정신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그 남자가 바로 별에서 온 그대인 것입니다. 그 별에서 온 그대를 찾기 전까지는 남자에 대한 갈망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참 남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와 결혼한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합니까? 타락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효과가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꾸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세상 것을 담는 기질을 가지고 펄쩍거리고 뛰어다니고 뭘 해보겠다고 용을 쓰고 다닙니다. 남편이 뭘 해보겠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나와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세끼 먹을 것을 두 끼만 먹어도 좋으니 남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기기를 바라는 여자가 참 선민인 여자인데 십자가 생활화로 가능합니다. 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랄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바랄 수도 없고 내 속에서 참 선민인 여자가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남편이 후줄근하고 하찮게 여겨지죠? 그 모습은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남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의 남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도 남편이 사장님을 대할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며 대하기 때문에 공손함과 겸손함에도 당당함이 있게 됩니다. 승진도 잘 못하는 남편일지라도 그럴 때에 별에서 온 그대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의 '수치스러운 일'이란 옛날에는 '선악과를 따먹자'고 말하던 하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내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십자가 생활화를 도저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십자가에서 죽자고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남자로서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내 아내에게도 십자가 생활화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간과하면 부부문제는 해결이 없습니다.

자기들 기분에 겨워서 사이좋게 잘 살다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포함한 3인조의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은 죽음을 예약해 놓은 가정일 뿐이고 부부입니다.
참 남자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합하는 남자가 참 남자입니다. 참 여자는 남자를 보는 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아는 여자입니다. 오직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남녀가 참 남자이고 참 여자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참 남자와 참 여자가 기근인 세상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생활화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본래 구상하신 참 남자와 참 여자의 모습을 나로부터 회복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